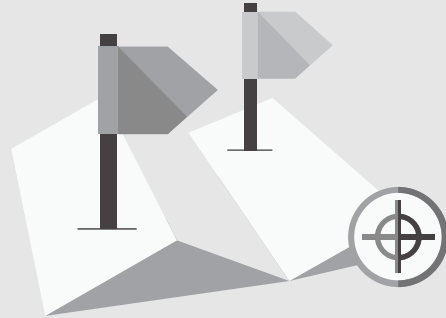


이달의 초점

보건복지분야 데이터 활용 현황과 과제



사회보장제도 근거 강화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연계·활용을 위한 과제
이현주

빅데이터 정보시스템 활용 현황과 과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중심으로
김은하

보건복지통계 현황과 발전 과제: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승인통계를 중심으로
신정우·천미경·전예지·진재현

인구실태조사 사례와 과제: 세대 및 성에 관한 실태조사(GGS)를 중심으로
이소영

조사 자료의 측정오차 보정 및 관리 방안: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이혜정

인구실태조사 사례와 과제: 세대 및 성에 관한 실태조사(GGS)¹⁾를 중심으로

Demographic Data and Its Implications: Generations and Gender Survey(GGS) Data

이소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에서 출생아 감소와 인구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장기화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인구 관련 조사데이터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출산과 관련된 인식 및 가치관과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출산을 경험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

이 글에서는 국제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인구조사로 '세대 및 성에 관한 실태조사(GGS: Generations & Gender Survey)'를 살펴본다. 향후 신뢰할 만한 인구조사데이터를 생산하고 국제 비교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3년마다 수행되고 있는 횡단 조사인 '가족과 출산 조사' (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종단적 조사의 요소를 포함하거나 GGS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한국에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장기화되고 있다.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15~49세 여성 한 명

이 49세가 될 때까지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이 된 1983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고착화되고 있다. 특히 2001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31명으로 초저출산의 기준인 합계출산율 1.3

1) 이 글은 이소영, 최인선, 정은희, 이삼식, Anne H. Gauthier. (2021). 인구조사 데이터 생산체계 개편 연구(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용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명 이하 수준과 가까워지면서 저출산 현상이 사회적 위험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20조에 명시된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범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정부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5년마다 수립되는 범국가적 중장기 계획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2006년부터 수립되어 현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의 저출산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해결해야 하는 사회 문제이기도 하고 적응해야 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저출산이 현상이든 문제이든 간에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출산이라는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미시적 요인과 거시적 환경, 그리고 이에 따른 의사 결정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생애에 걸친 조사와 이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가 필요하다. 실증적으로 (evidence-based) 분석된 의사 결정 과정은 관련 정책을 실효성 있게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에서는 인구조사데이터의 생산과 분석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인구패널을 실시하는 계획을 포함하였다.

또한 출산과 관련된 인식 및 가치관과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출산을 경험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사례를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국제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인구·가족 변동(dynamics)과 그에 관련된 데이터를 생산하는 인구조사로는 1990년대에 실시되었던 ‘출산력 및 가족 실태조사(FFS: Fertility and Family Survey)’와 이를 계승하여 수행되고 있는 ‘세대 및 성에 관한 실태조사(GGS: Generations & Gender Survey)’가 대표적이다. 인구 현상을 이해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GGS의 전신인 FFS는 1990년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수행되었고 GGS는 유럽과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수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GGS를 실시하게 된 배경으로 FFS를 살펴본 후 GGS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이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세대 및 성에 관한 실태조사(GGS)의 역사적 배경

세대 및 성에 관한 실태조사(GGS)는 출산력 및 가족 실태조사(FFS)가 전신이다. FFS는 1990년대에 유엔인구기금(UNFPA: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의 재정 지원을 받아 유엔유럽 경제위원회(UNEC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가 인구활동국(PAU: Population Activities Unit)과 함께 수행한 인구조사이다. 인구조사가 시작된 것은 출산율이라는 지표의 변화와 매우 관련이 깊다. 1960년대 유럽에서는 효과적인 피임 도구가 보급되면서 출

산율이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었다. 이에 유럽에서는 출산율이 하락하는 이유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하였다. 유엔은 1965~1972년 비교출산력조사(CFS: Comparative Fertility Survey), 이어 1975~1981년에는 세계출산력조사(WFS: World Fertility Survey)를 수행하였다. CFS는 45세 이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국제통계국(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WFS는 개발도상국의 출산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WFS는 한국을 포함하여 62개 국가에서 수행되었는데, 한국은 1974년 ‘한국 출산력 조사’라는 명칭으로 WFS에 참여하였다. 한국 출산력 조사는 15~49세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가구 조사와 개인 조사로 구분되어 수행되었고 조사 결과는 경제기획원과 가족계획연구원(1977)에서 분석되었다(오영희, 김경래, 신창우, 배혜원, 2016, p. 24).

CFS와 WFS의 조사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유럽에서 출산율이 하락한 원인은 결혼 연령 상승, 출산 연령 상승, 이혼 증가, 비혼 및 동거 가구 증가로 인한 비혼 출산, 무자녀 증가 등과 같은 가족의 변화인 것으로 나타났다(Festy & Prioux, 2002, p. 7). UNECE는 1987년 인구와 개발(Population and Development)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WFS의 후속 조사로서 출산력 및 가족에 대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FFS에 관해 논의하였다. 유엔은 CFS와 WFS 조사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출산력 하락의 원인이 되는 파트너십에 대해 더욱 자세히 연구할 필요성을 깨닫고 파트너십을 통해 출산 행동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출산력 및 가족 실태조사’(FFS) 프로젝트를 구상하였다. FFS는 가족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CFS, WFS와 같이 기혼 여성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지 않고 다양한 혼인 상태에 있는 여성을 포함하여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가구 조사 형태로 구성되었다(Festy & Prioux, 2002, p. 4).

비교출산력조사(CFS)와 세계출산력조사(WFS)에 이어 수행된 출산력 및 가족 실태조사(FFS)의 목적은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회원 국가의 출산과 가족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 네 가지 목표에 따라 조사가 수행되었다. 첫째, FFS 프로그램은 20개의 UNECE 회원 국가 사이에서 국제적으로 비교할 만한 조사를 실시한다. 둘째, 비교할 만한 조사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표준화된 국가별 FFS를 만들고 인구활동국(PAU)에 표준화된 국가별 데이터를 구축한다. 셋째, 비교 가능한 표준화된 국가별 FFS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넷째, FFS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국제 비교 연구를 한다.

FFS의 조사 문항은 핵심이 되는 10개 필수(core) 문항 영역과 국가별로 선택이 가능한 4개의 선택적 모듈(module) 문항 영역으로 구성된

다. 필수 조사 문항은 가구 일반 특성 관련 사항, 부모 가구 관련 사항, 파트너십 관련 사항, 자녀 관련 사항, 임신력(other pregnancies) 관련 사항, 피임 및 인공임신중절(fertility regulation) 관련 사항, 자녀에 대한 가치관 관련 사항, 기타 가치관(other views) 관련 사항, 교육 및 직업 관련 사항, 파트너 일반 특성(partner characteristics) 관련 사항으로 구성된다. 모듈 영역 문항은 인구 이동 이력 관련 사항, 피임 이력 관련 사항, 가치관 및 신념(values and beliefs) 관련 사항, 인구 정책 수용도(population policy acceptance) 관련 사항으로 구성된다. FFS를 수행한 국가는

표 1. 출산력 및 가족 실태조사(FFS) 실시 국가와 국가별 조사 대상

FFS 실시 국가	참여 기간	조사 대상		
		여성 (명)	남성 (명)	연령 (세)
오스트리아	1995~1996년	4,500	1,500	20~54
벨기에	1991~1992년	3,200	2,200	21~40
불가리아	1997~1998년	2,500	0	18~40
캐나다(1)	1990년	4,900	4,100	15~54
캐나다(2)	1995년	4,200	3,700	15~54
체코공화국	1997년	1,700	700	15~44
에스토니아	1994년	5,000	2,500	20~69
핀란드	1989~1990년	4,200	1,700	22~51
프랑스	1994년	2,900	1,900	20~49
독일	1992년	6,000	4,000	20~39
그리스	1999년	3,000	1,000	18~50
헝가리	1992~1993년	3,600	1,900	18~41
이탈리아	1995~1996년	4,800	1,200	20~49
라트비아	1995년	2,700	1,500	18~49
리투아니아	1994~1995년	3,000	2,000	18~49
네덜란드	1993년	4,500	3,700	18~42
뉴질랜드	1995년	3,000	0	20~59
노르웨이	1988~1989년	4,000	1,500	20~43
폴란드	1991년	4,200	4,300	18~49
포르투갈	1997년	6,000	3,000	15~54
슬로베니아	1994~1995년	2,800	1,800	15~45
스페인	1994~1995년	4,000	2,000	18~49
스웨덴	1992~1993년	3,300	1,700	23~43
스위스	1994~1995년	3,900	0	20~49
미국	1995년	10,500	0	15~44
합계(24개국)	1988~1999년	102,400	48,000	15~69

자료: UNECE. (2002). FFS Survey Design. 이소영, 최인선, 정은희, 이삼식, Anne H. Gauthier. (2021). 인구조사 데이터 생산체계 개편 연구. p. 92.

UNECE 회원국 54개 국가 중 23개 국가와 뉴질랜드이다. 국가별로 성과 연령 등의 기준에 따라 조사 대상과 표본의 규모에 차이가 있다(표 1).

표본의 규모뿐만 아니라 FFS를 수행한 국가별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도 상이하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조사 가구를 표본 추출의 단위로 하고 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 중 한 사람을 조사 대상으로 정해 이들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 조사를 하는 방식을 취했다. 일부 국가는 다른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했는데, 캐나다와 스위스는 전화번호를 활용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조사 대상자를 선별하고 개인 단위의 표집을 수행하였다. 폴란드에서는 가구 단위 표집 후 해당 가구에 거주하는 모든 성인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고, 네덜란드에서는 가구 단위 표집 후 해당 가구에 거주하는 성인 가구원 중 조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가구원 최대 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1988년부터 1999년까지 24개국에 참여하여 FFS를 수행하였다(도세록, 2013).

인구조사인 비교출산력조사(CFS), 세계출산력조사(WFS)와 후속 조사인 출산력 및 가족 실태조사(FFS)는 저출산과 같은 인구 현상의 원인과 그에 대한 대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국제 비교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FFS는 이전의 인구조사와 비교하여 조사 문항 개발과 조사데이터 수집이 더욱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FFS 이전의 인구조사가 가지고 있던 조사 대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즉, 기존

인구조사는 남성 응답자를 자녀 출산과 양육과 관련된 내용에서 여성 응답자보다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제외하고, 법률혼 내에 있는 기혼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 내용도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관한 제한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었다. FFS는 비록 남성 응답자가 여성 응답자보다 과소 표집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남성 응답자를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과 동거 등 모든 혼인 상태를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 한부모 가족, 입양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포함하여 가족 구성원의 출생과 성장에 이르는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진보된 인구조사로서 시사점이 있다(Festy & Prioux, 2002). 그럼에도 FFS는 여전히 가임 연령(fertile ages)을 중심으로 조사가 설계되어 있어서 자녀 출산이라는 생애 사건(lifecourse event) 이후의 가족 생애(lifecourse)에 관해 조사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3. 세대 및 성에 관한 실태조사(GGS)의 개요

세대 및 성에 관한 실태조사(GGS)는 2000년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인구활동국(PAU)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2000~2003년 인구활동국(PAU)은 출산력 및 가족 실태조사(FFS)를 지속하기 위해 '세대와 성에 관한 연구 과제(Generations and gender: Research into their behavior and quality of life)'를 시작하

표 2. GGP의 협업 기관

국가	기관
네덜란드	네덜란드 학제간 인구연구소(The Netherlands Interdisciplinary Demographic Institute)
에스토니아	탈린대학교(Tallinn University)
오스트리아	비엔나인구연구소(Vienna Institute of Demography)
크로아티아	지그레브대학교(Zagreb University)
독일	연방인구연구소(Federal Research Institute of Demography)
프랑스	국립인구연구소(Institut national d'Etudes demographiques)
헝가리	헝가리인구연구소(Hungarian Demographic Institute)
이탈리아	보코니대학교(Bocconi University)
폴란드	바르샤바 경제 대학(Warsaw School of Economics)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University of Stockholm)

자료: 이소영, 최인선, 정은희, 이삼식, Anne H. Gauthier. (2021). 인구조사 데이터 생산체계 개편 연구. p. 97.

였다. (GGS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FFS를 정교화 하며 시작되었다. 따라서 GGS 데이터는 FFS 데이터와 합해져 어느 정도 분석이 가능한 자료로 유용하다. GGS는 2009년부터 네덜란드 인구연구소(NIDI: Netherlands Interdisciplinary Demographic Institute)와의 협업으로 수행되었고 현재는 NIDI를 중심으로 '세대와 성 프로그램(GGP: Generations & Gender Programme)' 안에서 여러 나라가 참여하여 수행되고 있다. GGP는 거버넌스 단계(governance level), 운영 단계(operational level), GGP 커뮤니티(community) 등의 단계를 구성하여 GGS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GGP에 참여하여 GGS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별 협업 기관(consortium partner)은 <표 2>와 같이 인구 관련 연구소 및 대학으로 구성된다.

GGS는 '인구와 가족 변동 관련 데이터를 생산하여 관련 현상을 이해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

한 정책 수립'을 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김중훈, 박종서, 이소영, 최인선, 2018, p. 67). FFS는 가임 연령 인구를 대상으로 하며 횡단 조사로서 자녀 출산 이후의 가족 생애를 조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GGS는 대체로 18~79세 인구를 대표하는 전국 표본을 추출하여 수행하는 종단(longitudinal) 조사로 발전하였다. 종단 조사인 GGS는 2004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두 개의 라운드 내에서 총 4회의 조사가 수행되었다. 첫째 라운드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되었는데 3년마다 총 세 번(wave1, wave2, wave3)의 조사가 수행되었다. 2020년부터 시작된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2021년까지 17개국(프랑스,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폴란드, 체코공화국, 호주, 홍콩, 에스토니아, 몰도바, 우루과이, 벨라루스공화국)에서 조사가 수행되었고, 더 많은 국가가 조사에 참여하

기 위해 예산 마련 등의 준비하고 있다.

GGIS는 GGP에 참여하는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질문하게 되는 필수 조사 문항과 개별 국가 상황에 적합하게 국가별로 개발되는 선택적 조사 문항으로 구성된다. 2020년 이전의 첫째 라운드에서 활용한 필수 조사 문항은 1,000개 이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필수 조사 문항은 부모-자녀 관계(부모 및 자녀의 관점에서 바라본 부모와 자녀의 관계), 파트너와의 관계,

젠더에 관한 인식, 파트너십, 재혼 가족, 출산 이력, 피임·난임, 임신 중단, 주거 상황, 취업 상황, 학력, 건강 상태, 개인의 사회적인 관계망, 삶의 만족도, 사회보장제도, 가치관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0년부터 시작된 둘째 라운드의 조사 문항은 기본적으로 이전 조사와의 시계열 유지를 위해 그대로 활용되는 문항과 새롭게 개발된 문항으로 구분된다. 둘째 라운드에서 추가된 조사 문항은 <표 3>에서 제시하고 있다.

표 3. 2020년에 추가된 GGS 조사 내용

영역	내용
응답자의 일반 사항	- 이동(의도, 이사 또는 이민의 이유) -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 이성과의 만남(온라인 데이트 포함)
생애사 (life history)	- 비동거 자녀의 거주 상황 - 디지털을 활용한 개인 사회적 네트워크 사용 - 자녀의 건강
출산력 (fertility)	- 임신 선호 시기 - 성적 자율(피임에서의 자기결정) - 첫 월경 시기, 변성기, 갱년기 - 가족계획 관련 미충족 욕구
세대	- 부모의 결혼, 이혼, 첫 자녀 출산(입양) 날짜 - 아동기에 3개월 이상 떨어져서 산 경험
건강 및 안녕(wellbeing)	- 건강관리의 자율성(자기결정) - 행복 - 외로움
일(직장)	-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 - 고용 형태(정규직, 장기 또는 단기 계약직) - 향후 1년간 실직 가능성
소득	- 향후 3년간의 예측되는 재정 상황 - 물질적 또는 사회적 박탈
태도 및 가치관	- 일반적인 신뢰 - 미래에 대한 계획 - 종교, 신앙 - 성 규범(gender norms) - 성별 유급 노동 구분에 대한 태도
개별 국가 조사	- 간단한 국가별 모듈 - 코로나19의 영향(개인의 삶의 질, 파트너 및 가족 관계, 경제 상황, 건강 상태)

자료: 이소영, 최인선, 정은희, 이삼식, Anne H. Gauthier. (2021). 인구조사 데이터 생산체계 개편 연구. p. 102.

GGS의 조사 대상과 표본 표집 방식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8~7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하고 표본 규모는 8,000~1만 명이다. GGS 둘째 라운드의 첫 번째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표집 방식과 조사 대상 연령 기준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우선, 18~59세 개인을 표집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수행하는 국가는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등 8개 국가이다. 가구를 단위로 하여 표집하고 18~79세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는 국가는 영국,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캐나다, 우루과이 등 8개 국가이다. 가구를 단위로 하여 표집하고 18~59세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국가는 헝가리, 폴란드, 홍콩, 타이완 등 4개 국가이다. 18~54세 개인을 표집하여 조사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국가는 핀란드와 노르웨이 등 2개 국가이다. 독일은 가구를 단위로 하여 표집하고 18~49세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2022년 현재 가용한 GGS 데이터는 2004~2011년 첫째 라운드에서 수행된 조사의 결과이다. 가용한 GGS 데이터는 첫째 라운드의 첫 번째 웨이브(wave)에 참여한 20개 국가(호주, 오스트리아, 벨라루스공화국,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공화국, 에스토니아, 프랑스, 조지아,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스웨덴)의 조사데이터와 두 번째 웨이브에 참여한 14개 국가

(호주,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체코공화국, 프랑스, 조지아, 독일, 헝가리,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러시아, 스웨덴)의 조사데이터이다.

4. 나가며

세대 및 젠더에 관한 조사(GGS)는 국제적으로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생산하는 대표적인 인구조사이다. 그동안 인구 관련 국제적 종단 조사인 출산 및 가족에 관한 실태조사(FFS)와 이후에 실시된 GGS에 OECD 회원국 상당수가 참가해 왔다. 2021년 현재 GGS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는 유럽과 비유럽 국가를 포함하여 24개 국가이고,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인구조사로서 GGS의 가장 큰 장점은 횡단적 요소와 종단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GGS는 인구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 단위의 횡단적 비교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GGS는 1990년대에 구축된 FFS 데이터와의 병합을 통해 장기간의 시계열적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내용적 측면에서 GGS의 조사 문항은 응답자의 파트너십과 출산 이력 등과 같은 회고적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체로 3년 후의 후속 조사를 통한 연속 문항을 포함하여 조사 대상자 개인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추적할 수 있는 종단적 조사이다. 조사 항목은 오랜 기간의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문항을 통한 모듈은 계속해서 과학적 검증 과정을 거치는 등 조사는

내용의 완성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GGS 문항은 인구 현상을 이해하고 가족의 역학(dynamics)을 파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발되었고, 특히 최근 들어 중요시되고 있는 성(gender)과 피임 및 개인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 등이 조사 문항에 포함되며,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지표(각각 SDG 5.6.1 및 SDG 3.7.1)인 충족되지 않은 가족계획과 관련된 욕구 등을 조사 문항을 통해 측정하고 있다. 그간 세대와 성 프로그램(GGP)은 GGS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2000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1,430여 개의 논문을 출판하였고(GGP, 2022), 이러한 연구 결과는 관련 정책 수립의 실증적 증거로 활용되고 있다. GGP는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및 유엔인구기금(UNFPA)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 신뢰받는 GGS 데이터를 생산하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인구 분야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구조사로는 승인통계로 구축되고 있는 가족과 출산 조사(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가 있다. 전국 조사로서 가족과 출산 조사는 한 시점에서 가족과 출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단면 조사이다. 물론 횡단 조사를 통해서도 과거에 대한 정보를 회고적 문항의 기본적인 한계를 내포하며 수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횡단적 실태조사는 급변하는 인구 현상과 가족의 변화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가족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개인은 이러한 가족의 생성과 해체를 여

러 차례 경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적인 혼인과 이혼뿐만 아니라 사실혼 및 비혼 동거와 동거의 해체도 포착해야 하며, 결혼이나 출산 의향뿐만 아니라 결혼이나 출산 의향이 실제 행동으로 이행되었는지를 파악해야 정보가 더 완전해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인구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전국 실태조사에 머물지 말고 인구 변화와 가족의 실제적인 역학(dynamics)을 포착하기 위한 미래적 요소를 포함하기 위해 후속 조사를 실시하거나 패널로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별 국가의 인구 현상은 전 세계적인 일반적 인구 현상일 수도 있고 국가별 고유의 인구 현상일 수도 있다. 유사한 인구 현상을 보인다고 해도 인구 변화에 대한 원인과 원인의 크기는 국가의 특성과 관련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효과적인 인구 정책도 국가가 가진 사회문화적·경제적·정치적 특징 등에 따라 국가별로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 간 비교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맥락을 고려하여 동일한 조사 항목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비교해야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GGS 데이터를 활용하여 특정 정책이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유사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라는 인구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중단적 조사인 GGS에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중훈, 박종서, 이소영, 최인선. (2018). **결혼 및 출산 관련 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한 인구패널 구축 타당성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도세록. (2013). **출산·보육 통계생산 및 관리효율화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대한민국정부. (2020).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서울: 대한민국정부.
- 오영희, 김경래, 신창우, 배혜원. (2016). **출산력 조사(1974~2012)를 활용한 한국 출산력 변화과정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영, 최인선, 정은희, 이삼식, Anne H. Gauthier. (2021). **인구조사 데이터 생산 체계 개편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Festy, P., & Prioux, F. (2002) *An evaluation of the FERTILITY AND FAMILY SURVEYS PROJECT*. New York.
- GGP. (2022), *Generations & Gender Programme*.
<https://www.ggp-i.org/form/publications/>에서 2022. 6. 1. 인출
- UNECE. (2002). *Fertility and Family Surveys: Survey Design*. Geneva: UNECE Population Activities Unit.

Demographic Data and Its Implications: Generations and Gender Survey(GGS) Data

Lee, Soyou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demographic transition in Korea, characterized by the decrease in births and population aging, has been extremely rapid. Reliable demographic data are needed to analyze demographic changes in Korea. Furthermore, to understand the values, attitudes, and behaviors related to fertility, it is beneficial to explore low-fertility situations in other countries. This study examines the Generations & Gender Survey (GGS), a demographic survey that enables international comparisons. It should be considered adding longitudinal elements in 'The National Survey on Fertility and Family Health and Welfare' or taking part in GGS, to implement and evaluate policies to respond to population change.